

게임이론에서 본 한-미 통상관계

이상환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글초록

한-미 통상관계는 정치적인 시각과 경제적인 시각을 모두 고려하여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경제적인 시각만을 고려할 경우 이는 PD 게임에서 말하는 갈등관계만을 나타내나, 정치·경제 상호보완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 SH 게임에서 말하는 협력관계를 보여준다. 냉전체제 하의 동맹국들이 한-미 통상관계는 국제정치경제적인 시각을 고려한 SH 게임으로 설명함이 타당하다. 1950·60년대의 비갈등적인 한-미 통상관계는 미국경제의 강화와 경직된 냉전적 양극체제 및 한국에 대한 강력한 미국의 영향력에 기초하며, 1970·80·90년대의 갈등적인 한-미 통상관계는 미국경제의 약화와 이완된 탈냉전적 다극체제 및 한국에 대한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에 근거한다. 아울러, 1950·60년대의 비갈등적인 한-미 통상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군사적인 측면이 강하며, 한국의 이익은 정치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970·80·90년대의 갈등적인 한-미 통상관계는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의 측면 강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향후 양국의 경제 및 신뢰 향상에 따라 다시 비갈등적인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주제어: 한미통상관계, 죄수딜레마게임, 사슴사냥게임

1. 서론: 한국과 미국간 통상관계의 변화

한국과 미국은 세계정치경제체제내에서 가장 활동적인 핵심적 국가들로 정치·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에 있다. 제2차 대전이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로서 상대적 우위의 정치·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미 통상관계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간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한-미 통상관계를 제2차 대전 후 초기의 후원자-고객간의 비대칭관계에서 경쟁적인 대칭관계로 옮겨가게 하고 있다.

제2차 대전이래 한-미 통상관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첫번째 시기는 1950·60년대의 전후 재건시대이고, 이 시기 동안에 미국은 의도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도왔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힘썼다. 미국은 한국 경제발전의 후원자로서 한국의 보호무역정책에 직면하여 이를 감수하였다. 한국은 냉전시기 미국의 봉쇄정책의 전초기지로서 미국의 핵우산하에서 경제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이 기간동안, 비록 양자간에 경제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안보문제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두번째 시기는 1970년대 초기부터 냉전시대 끝까지로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는데, 이 시기에 한국은 미국의 10대 교역국으로서 성장하였다. 1970·80년대동안 한-미 통상문제는 안보문제와 함께 양자간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왔다. 마지막으로, 한-미 통상관계는 경제적 문제를 우선 강조하는 새로운 탈냉전 시대인 세번째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¹⁾

미국의 통상정책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는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보호주의적 경향이 우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따라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변모되어왔고 이는 통상법에 반영되어왔던 것이다. 미국의 GNP가 전세계 GNP의 45%를 차지하였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Bretton Woods 체제를 바탕으로 한 1960년대말까지 미국은 상대적 우위의 경제력을 토대로 그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경제는 약화 현상을 보였고, 이에따라 점차 보호무역주의로 그 통상정책의 기조가 바뀌어갔다. 특히 1988년의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의 “Super 301조 및 Special 301조”²⁾ 등은 자유무역정신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보호주의적인 무역경향을 대변해준다. 더욱이, 1994년 3월 클린턴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하여 신 Super 301조를 발동하면서 보다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그 정책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제1기는 무역자유화추진기(1945-70년), 제2기는 보호무역주의 확대기(1971-84년), 그리고 제3기는 보호무역주의 변화기(1985년-현재)라고 할 수 있다. 제1기의 미국 통상

1) Altman(1994, 2-3)이 전후 미-일간의 경제관계를 시대적으로 구별하여 분석한 것에 근거하여 한-미 통상 관계를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나눌 수 있다.

2) Super 301: 1988년 종합무역법의 1974년 통상법 Section 301에 대한 수정조항하에서 USTR은 미국의 수출을 방해하는 정책·행위·관행의 수와 범위 그리고 이러한 관행의 제거로부터 오는 미국의 수출이익에 기초한 우선협상국을 선정하도록 요구된다. 만약 외국의 행위가 불충분하거나 시기적절치 않으면 그 법은 보복을 요구한다.

Special 301: 1988년 종합무역법의 이 조항은 USTR로 하여금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존재하는 법률과 협정을 어긴 역사가 있는 국가들을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국가들은 매년 무역관행을 조사받는다. 만약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Section 301하에서 강제보복을 당하게 된다.

정책은 자유무역을 기조로 전개되었다. 미국은 자유무역이 세계경제의 번영과 세계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하에 GATT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의 형성과 발전에 매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간무역협상(MTN)은 1947년의 제네바라운드 이후 1963-67년의 케네디라운드까지 6회에 걸쳐 개최되고, 그 기간에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90%까지 인하되었다. 제2기인 1970년대 초반에서 1980년대 전반기까지 대략 15년간은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된 시기였다. 닉슨대통령이 1971년 발표한 신경제정책은 보호무역정책으로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연이은 1974년의 통상법, 1979년의 통상협정법, 그리고 1984년의 통상관세법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제3기인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그 내용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첫번째 변화는 1974년 통상법 301조의 적극적 운용에 의해서 자국의 수출이 증대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무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특별히 지정하고, 협상에 의해서 철폐 또는 축소를 도모하고, 만약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수입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제재조치를 일방적으로 보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는 일정한 국가관행을 특별히 규정하여 301조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Super 301조와 지적재산권보호가 불충분하여 미국기업의 공정한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국가를 특별히 지정하여 301조를 보다 신속히 적용하는 이른바 Special 301조를 추가시켰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은 1970년대의 유럽·일본 등 무역상대국에 대하여 수출자유규제를 요구하는 수입보호주의에서 1980년대 후반의 301조에 기초한 보다 공격적인 수출보호주의의 방향으로 변모된 것이다. 그 두번째 변화는 경제적 지역 통합의 추진이다. 미국은 1966년 미국·캐나다 자동차협정을 시발로 지역경제협력에 참가하였으며, 그 후 1985년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1988년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1991년에 이르러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참가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적 경제통합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301조식 접근방법과 지역주의 접근방식은 미국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한-미 통상관계도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에 따라 제2기와 제3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1970·80년대에 보다 갈등적인 면을 보였다. 세계경제에 있어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와 탈냉전체제로의 변화가 미국의 대 한국 통상관계를 보다 경쟁적인 그리고 갈등적인 양상으로 이끌어간 것이다. 한-미 통상관계는 그 분쟁횟수의 증가와 더불어 그 내용적 측면에서도 과거의 수입보호적 방어적인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부터 수출보호적 공격적인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하여 보다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반덤핑제소를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에 치중했던 미국의 대 동북아 통상정책이 통상법 301조의 발동을 중심으로 한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확보로 그 목적이 변모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보다 상호의존적이 된 한-미 통상관계는 양자간의 경제적 파국을 원치 않는 합리적 정책행위로 인하여 타협·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냉전종식 후 세계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경제의 다극화와 상호의존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는 WTO중심의 세계주의(globalism)와 NAFTA와 EU 등의 결성에 따른 경제블록간에 보호무역을 야기시킬런지 모르는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상반된 국제무역질서이다. 다시말하여, 지역주의는 일부 특정지역들의 경제이기주의를 토대로 한 경제블록의 가속화를 의미하며, 세계주의는 크고 작은 경제블록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고 지구촌의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최근 국제무역질서는 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강화되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단기적으로 이 두 가지 흐름속에서 상호 대결과 협력이 공존하는 신질서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의 흐름속에서 미국은 자유·공정 무역이라는 통상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양면전략을 수행하고 있다.³⁾ 미국 통상정책의 지역주의화 경향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대표되는 것이고, 세계주의화 경향은 WTO 출범을 위한 미국의 노력속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미국은 자유무역이라는 장기목표의 달성을 위해 WTO의 형성과 발전에 매진하는 것이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혹은 단기목표인 공정무역을 무역상대국에게 요구하는 수단으로서, 나아가 세계주의를 달성하는 과도기적 장치로서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을 달성키 위해 공정무역실현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한편에서 WTO를 통한 자유무역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수출보호주의·지역주의 등 복합적인 전략적 무역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환경에 놓여져 있다. 즉, 냉전시대와 같이 안전보장상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무역상대국에 무역상의 양보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제무역환경속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통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앞으로의 한-미 통상관계는 대칭적 경쟁관계로 발전할 것이며, 그러면서도 보다 상호의존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협력적이 될 것이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의 요구와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정책수입의 요구, 기타 수입수량 또는 불공정 무역

3) 미국의 통상정책은 두가지 목표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는 장기목표로 '자유무역(free trade)'이며, 이는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의 상품의 자유로운 제한 없는 이동이 가장 큰 물질적 이득을 가져옴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은 관세·비관세 장벽의 축소와 철폐를 추구하고 시장조건이 미국이 거래할 상품의 양과 그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는 자유주의적인 경제사상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단기목표로 '공정무역(fair trade)'이며, 이는 만약 일국의 상거래가 자유무역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에 미국은 가능한 한 그것을 자유무역화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무역을 위한 요구는 경제적 불황기에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즉, 상황이 악화되면 미 기업들은 수입품에 대한 고장벽을 설정하거나 수입규제혜택을 요청함으로써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려 한다. 이러한 자유·공정 무역의 원칙을 기초로 미국은 그들의 통상관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행위의 규제 등으로 한-미 통상관계는 보다 갈등적 국면이 예상된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양측은 자유무역주의로의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에 기초하는 경제블럭을 형성하거나 이를 통한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global free trade)로 나아갈 것이다.

II. 국제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본 한-미 통상관계

한-미 통상관계에 적용되어지는 국제무역에 관한 두가지 주요한 이론적 시각은 정치적 시각인 패권안정이론(Krasner, Gilpin, Hirschman), 안보무역연계이론(Gowa, Pollins, Snyder), 선거주기이론(Nordhaus, Golden·Poterba, Tufte), 그리고 경제적 시각인 잉여능력이론(Strange), 경기순환이론(Destler, McKeown), 수입침투이론(Cline, Krugman) 등이라 할 수 있다. 패권안정(hegemonic stability)이론은 세계경제에 있어서 국가간 힘의 배분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고, 이러한 국제무역의 정치적 분석은 세계경제체제에 있어 약화되어가는 패권국가의 지위의 견지에서 국제무역분쟁을 설명하려한다. 안보무역연계(trade-security linkage)이론은 탈냉전적 다극체제하의 이질적인 동맹 사이에서 보다 냉전적 양극체제하의 동맹내 국가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의 실현은 보다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간의 안보적 상호의존도의 견지에서 국제무역관계를 분석한다. 선거주기(electoral cycle/political business cycle)이론은 전반적 경제상황이 정치적 선거와 맞추어 순환한다는 것으로, 현직 소유자는 재임동안 일련의 예상할 만한 정책패턴을 유지하는데 초기 재임동안 비교적 검약한 재정을 유지하고 선거에 임박하여 비교적 후한 정부지출을 한다는 점에서 선거당해에 국민지지 유발 차원에서 국제무역에 있어서 보다 보호적인 정책이 취하여진다고 말한다. 잉여능력(surplus capacity)이론은 변화하는 수요패턴의 시각에서 잉여생산된 상품의 양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경제에 있어서 수요-공급 기능의 측면에서 국제무역관계를 분석한다.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론은 실업률과 GNP성장률 등에서 보여주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견지에서 국제무역분쟁을 설명하려 한다. 수입침투(import penetration)이론은 무역수지 적자를 야기시키는 증가된 수입침투가 국제무역분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라 강조한다.

1. 정치적 시각에서 본 한-미 통상관계

패권안정이론(Krasner 1976, 1985; Gilpin 1975, 1987; Hirschman 1980)은 세계경제는 자유 국제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중심부에 패권국을 요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패권국은 그 체제내의 질서를 보존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Gilpin, 후에 Krasner에 의하여 발전

된 패권 모델에 의하면, 패권국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감퇴는 필수불가결하게 자유무역질서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체제는 미국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미국에 의해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과 한국간의 무역분쟁은 그 무역관계에 대한 미국의 지배 혹은 영향력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가하는 한-미 통상갈등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대적 힘의 위치와 함수관계에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가, 비록 주로 그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힘에 바탕을 두고 지역적 패권을 유지해왔을지라도, 1970년대 이래로 비교적 감소되어왔던 것은 사실인 것이다. 패권안정의 시각에서 통상관계에 있어 미국의 약화되어가는 지위는 심각해져가는 한-미 통상마찰과 관련되어 있을런지 모른다. 단순히 말하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의 정도는 한국과 미국간의 통상갈등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안보무역연계이론(Gowa 1989; Pollins 1989; Snyder 1984)은 냉전적 양극체제하의 동맹내 국가들 사이에서 자유무역의 실현은 보다 가능하며 탈냉전적 다극체제하의 이질적인 동맹 사이에서 보호무역이 있음직하다는 점에서 국가간의 안보적 상호의존도의 견지에서 국제통상분쟁을 분석한다. 즉, 국가간 쌍무적인 정치·군사적인 협력과 갈등이 양기간 통상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관계는 양극체제하의 냉전적 긴장의 시기에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다 협력적이다. 미국은 냉전적 양극체제하에서 그 우방들에게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을 취함으로써 우방들의 경제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즉, 증대하는 양극적·냉전적 긴장이 한-미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시키며, 이러한 시기에 미국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에 보다 강조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냉전적 양극체제하에서 동북아시아에 있어 동서긴장에 토대를 둔 강력한 한-미 정치·군사협력은 한-미 통상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관계를 협력적으로 유지하게하며, 탈냉전적 다극체제로의 전환은 이완된 한-미 정치·군사협력관계로 인해 한-미 통상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선거주기이론(Nordhaus 1975; Golden·Poterba 1980; Tufte 1978)은 전반적 경제상황이 정치적 선거와 맞추어 순환한다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현직 소유자는 재임동안 일련의 예상할만한 정책패턴을 유지하는데 이는 초기 재임동안 비교적 검약한 재정을 유지하고 선거에 임박하여 비교적 후한 정부지출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국민적 지지 획득의 차원에서 선거당해에 보다 보호적인 통상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피해를 당한 산업은 선거에 임박하여 특히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보호주의적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한-미 통상분쟁은 대통령선거 주기에 근거한 국내정치적 요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패권안정이론, 안보무역연계이론, 그리고 선거주기이론을 종합하여 보면, 한-미 통상관계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약화와 냉전적 양극체제의 이완과 함께 보다 갈등적

인 국면으로 전환되어왔고, 그러면서도 지속되어온 우방국으로서의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는 통상관계의 갈등적인 면을 억제시켜주는 요인이 되어왔다. 또한, 국내정치적으로는 선거주기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의 국내적 요구는 미국의 대한 통상관계를 주기적으로 갈등국면으로 치닫게 하였다.

2. 경제적 시각에서 본 한-미 통상관계

정치적 시각과는 달리, 경제적 시각인 잉여능력이론(Strange 1979, 1981, 1985, 1987)은 잉여생산능력이 세계무역에 있어 보호주의적 추세를 가속화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잉여능력의 상황이란 막대한 양의 잉여생산능력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를 일컫는다. Strange(1981, 13)는 잉여능력을 “수요가 모든 기업에게 고용과 수익을 유지케 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생산을 적절히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정의한다. 잉여능력이론에 의하면 잉여능력이 자유국제무역을 약화시키며, 개별국가는 잉여생산에 의한 경제불황의 시기에 보호무역정책을 취하고, 경제호황의 시기에 무역자유화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무역정책결정의 단순한 경제적 설명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순환이론(Destler 1986, 1987, 1992; McKeown 1983)은 보호무역주의의 중요 결정요인으로서 국내외적 경제상황을 지적한다. McKeown은 불경기하에서 기업은 보호무역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이에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취하게 되고, 호경기하에서 정부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정책을 취한다고 말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실업률과 GNP성장률로 대변되는 일국의 거시적 경제상황이 무역상대국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즉, 일국의 실업률이 상승하면 산업으로부터의 보호주의적 정책요구는 증대되고 정부는 이에 보호적 조치를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경제성장률이 정체 혹은 퇴보하는 시기에 수입제한을 위한 국내적 요구는 강화된다는 것이다.

수입침투이론(Cline 1982; Krugman 1986)은 무역분쟁은 증가된 수입침투로 인한 악화된 무역수지적자에 의해 야기된 보호주의적인 국내적 요구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증가하는 일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상대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게 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Odell(1985, 272-273)이 주장하듯이, 일국의 시장으로의 수입침투가 증가하면 할수록 상대국과의 시장개방과 관련한 무역분쟁의 기회는 증가된다. 전통적인 무역이론이 강조하는 기본적인 가정은 무역수지균형의 유지이고, 무역수지적자의 지나친 적체는 무역규제의 압력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는 국가들로 하여금 무역수지의 균형을 하기 위한 수입제한을 이끌린지 모른다.

이러한 경제적 시각에 근거하여, 한-미 통상관계는 잉여능력, 경기순환, 수입침투로 설명되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상호작용할런지 모른다. 즉, 미국은 호경기하에서 한국의 경

제적 침투를 관리하고 인내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으므로 보다 자유로운 통상정책을 취할 것이며, 불경기하에서는 정반대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통상마찰의 주요 결정요인으로서 과잉생산 및 과잉수입침투 문제를 강조하고, 그 문제는 밀접히 악화되어가는 전체 경제상황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말한다. 즉, 세계무역에 있어 자유주의적 혹은 보호주의적 추세는 전세계적인 경제상황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론은 한-미 통상관계를 주로 경제적 요소로서 설명하는 것이다. 잉여능력, 실업율, GNP 성장을, 그리고 수입침투 등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한-미 통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한-미 통상갈등을 초래하는 보다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시각은 한-미 통상분쟁을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악화의 견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3. 정치·경제의 상호보완적인 시각에서 본 한-미 통상관계

국제무역관계에 관한 두 가지 시각 중 하나를 고른다면 경제적 시각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통상찰을 가져오는 원인은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모두에 있는 것으로, 정치적 시각과 경제적 시각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한-미 무역분쟁을 설명함에 있어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관계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분쟁을 결정하는 것이다. 명백히 말하여, 한-미 통상관계를 다룸에 있어, 우리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시각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1> 국제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본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미 통상분쟁 (1950~)

한-미 정치·군사적 관계 (패권안정·안보무역연계)	미국의 경제상황(잉여능력·경기순환·수입침투)	
	적정생산공급·호경기· 적정수입침투	과잉생산공급·불경기· 과잉수입침투
강력한 미국의 영향력· 경직된 양극체제	① 자유주의 자유무역정책/무역분쟁해소 자유주의	② 보호주의 무역분쟁경향 자유주의
허약한 미국의 영향력· 이완된 다극체제	③ 자유주의 무역분쟁경향 보호주의	④ 보호주의 보호무역정책/무역분쟁심화 보호주의

<표 1>에서, ①은 비갈등적인 한-미 통상관계를 초래하는 자유주의적 미국의 통상정책의 조건을 보여주며, ④는 갈등적인 한-미 통상관계를 파생시키는 보호주의적 미국의 통상정책의

조건을 나타낸다. 즉, 비갈등적인 관계는 한-미 통상관계에 있어 미국의 패권증대 혹은 유지·경직된 양극체제와 미국 경제의 성장에 근거하며, 갈등적인 관계는 미국의 패권약화·이완된 다극체제와 악화된 경제상황에 기초하는 것이다. 단순히 말하여, ㉑는 1950·60년대의 한-미 통상관계를 적절히 설명하여주며, ㉒는 1970·80·90년대의 한-미 통상관계를 대변하여 준다.

III. 게임이론적 시각에서 본 국제통상 관계

전통적인 무역이론은 국가간의 시장개방은 국제무역분쟁을 해소시키는 구실을 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일국의 시장개방에 대해 상대국의 시장보호는 그들 국가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 변인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무역상대국간의 시장개방의 일치정도 ↑ ↓ → 무역상대국간의 국제무역분쟁의 정도 ↓ ↑

물론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 일국에게 최상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상대국의 시장개방에 대해 시장보호정책을 취함으로써 일방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한 시적으로 가능한 결과이고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국가간의 무역관계를 게임이론적 시각에서 어떠한 게임으로 보아야하는가 하는 논의에 대해 여러가지 주장이 존재하나, 고전적인 국제무역이론은 국제무역을 Prisoner's Dilemma(PD) 게임으로 간주한다.

PD 게임에서는 우둔하고 의리를 지키며 불합리적으로 행동(협력)하는 두 행위자보다 영리하고 합리적으로 행동(기만)하는 두 행위자가 손해를 보는 결과(㉑)가 나게 된다. 물론 이 게임에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협력)하는 행위자와 합리적으로 행동(기만)하는 행위자가 게임을 하게되면 합리적으로 행동(기만)하는 행위자가 유리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합리적 행동(기만)이 양쪽이 다같이 원하는 결과(㉒)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것보다 못한 결과(㉑)를 초래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을 가져오게하고 있으며 따라서 합리적이란 개념도 애매해진다. <표 2>에서 각 행위자의 주요한 전략은 공공재(시장개방)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자의 행위가 ㉑라는 차선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균형 속에서는 공공재의 생산이 불가능하며 어느 누구도 최선의 결과인 ㉒를 얻기위해 공헌하지 않는다.(Ordeshook 1986, 206-210)

〈표 2〉 Prisoner's Dilemma 게임 (경제적인 시각에서 본 국가간의 무역)

국가 b	국가 a			
	협력(시장개방)		기만(시장보호)	
협력(시장개방)	㉠	2, 2	㉡	4, 1
기만(시장보호)	㉢	1, 4	㉣	3, 3

주: 각 행위로 인한 대가는 1(최선)부터 4(최악)까지의 등급으로 되어있다. 앞의 값이 국가 b의 것이고 뒤의 값이 국가 a의 것이다.

안정된 자유무역균형을 이루기위해서 패권안정론자들은 패권국이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른 국가들이 시장보호(기만)를 할지라도 최선의 전략으로서 시장개방(협력)을 택하는 국가를 요구한다. 패권국은 자신이 공공재(시장개방)의 생산을 위한 총체적인 부담을 질지라도 이를 받아들일 동기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패권국은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합리적인 행위자가 아닌 것이다. Conybeare(1984, 6-19)는 국제무역에 있어 국가간의 관계를 PD 게임으로 이해하면서, 자유무역은 근본적으로 public good이 아니며, 패권국이 그들의 최선의 정책으로서 자유무역을 실시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한다. 패권국이 자유무역체제를 선호할 아무런 이유와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패권국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약소국에 대해서 적절히 무역규제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Conybeare는 패권체제가 안정될런지 모르나 패권안정이론에서 말하는 상호이익되는 개방무역 관계를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패권국이 그들의 경제상황에 기초한 국익의 관점에서 약소국에게 개방 혹은 보호 무역정책을 취한다는 것이다.

PD게임은 국제무역에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히 큰 일국이 그 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적정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극대화시킨다는 일반적인 국제무역이론으로부터 쉽게 추론될 수 있다. 만약 모든 국가들에 의해 적정 관세수준이 사용된다면, 개인적으로 집합적으로 차선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각국은 상대국이 적정 관세수준을 부과치 않을 때 이를 부과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패권안정이론의 공공재 주장과 일반적인 국제무역이론은 모두 정치적 진공 속에서 국제무역을 분석한다. 그러나 국가간의 무역은 안보라는 외부효과와 관계된다. 무역장벽의 제거는 실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들의 안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강대국은 무역의 실질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보다 상대적 국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진다. 즉, 국가들은 실질 경제적 이익의 견지에서 단지 무역으로부터의 대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힘의 역학관계에 보다 강력한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시장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보다 우방국들 사이에서 보다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양극체제 하의 동맹국들이 다극체제내에서 형성된 동맹국들보다 더 자유무역을 실현할 것 같다.(Gowa 1989, 1246-1248) 양극체제가 동맹내 국가간 시장개방을 달성하는데 두가지 기준에서 다극체제보다 강점이 있다. 하나의 기준은 동맹탈퇴의 비용으로, 일국이 대안적인 동맹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입중인 동맹을 탈퇴할 가능성과 관련된다. 동맹탈퇴의 위험은 국제체제에 따라 다양하다. 그 위험은 양극체제에서 보다 다극체제에서 보다 높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극체제하의 동맹내에서 동맹탈퇴의 가능성은 낮으며 따라서 자유무역의 실현 가능성은 증대된다.

다른 하나의 기준은 동맹국내 약소국을 이용하려는 강대국의 행위를 억제시키는 다른 동맹국들의 능력과 관련된다. 동맹내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무역관계는 비대칭적인 것이다. 이 게임에서 강대국의 지배적인 전략은 PD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정관세를 부과하는 기만전략이며, 약소국의 지배적인 전략은 자유무역을 고수하는 협력전략인 것이다. 이 게임의 논리적 결과는 강대국의 관세장벽 설정과 약소국의 포기이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한 동맹내에서 자유무역은 가능할 것인가? 무엇이 동맹내 패권국이 적정관세를 버리도록 하게 하는가? 패권안정이론의 비판자는 단지 경제적 시기에 기초하여 패권국이 적정 관세를 부과할 강력한 동기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시안적인 합리적인 패권국은 그러한 관세를 거부한다.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인한 패권국의 동맹내 다른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이타주의는 예상보다 높을런지 모른다. 강대국의 경제적 이타주의적인 행위의 빈도와 그 비용은 역으로 관련되어진다. 따라서, 정치·군사적인 이익의 견지에서 강대국은 동맹내 약소국들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할런지 모른다. 동맹내의 이타주의가 다극체제의 동맹내에서 보다 양극체제의 동맹내에서 보다 가능할 것이다.

〈표 3〉 Stag Hunt 게임 (정치·경제 상호보완적인 시각에서 본 동맹국가간의 국제무역)

동맹국 b	동맹국 a	
	협력(시장개방)	기만(시장보호)
협력(시장개방)	Ⓐ 1, 1	Ⓑ 4, 2
기만(시장보호)	Ⓒ 2, 4	Ⓓ 3, 3

주: 각 행위로 인한 대가는 1(최선)부터 4(최악)까지의 등급으로 되어있다. 앞의 값이 동맹국 b의 것이고 뒤의 값이 동맹국 a의 것이다.

정치·경제 상호보완적인 시각에서 본 동맹국가들간의 무역은 Stag Hunt(SH) 게임으로 표현될 수 있다. SH 게임에서 행위자 a의 결과에 대한 선호순서는 PD 게임 (Ⓑ) > (Ⓐ) > (Ⓓ)

©)에서와는 달리 ① > ② > ③ > ④ 이다. 즉 상호협력이 지배적인 전략이 되며, 그 균형점은 PD 게임에서와는 달리 최선의 결과인 ①이다. 양극체제하의 동맹국가간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증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간의 통상관계는 보다 자유로운 비갈등적·협력적인 면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SH 게임은 ①과 ④라는 두가지 균형점을 가진다. 만약 이 게임은 반복되면 ④가 아닌 ①가 보다 있음직한 결과인 것이다.(Ordeshook 1986, 220-235) 동맹국가간의 국제통상분쟁은 PD게임이라기보다는 SH게임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간의 국제통상분쟁은 PD 게임이라기보다는 SH 게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냉전적 양극체제하의 동맹국들인 한-미 통상관계는 SH 게임으로 설명가능하다. 냉전적 경직된 양극체제하에서의 한-미 통상관계의 균형점은 ①이나 탈냉전적 이완된 다극체제하에서의 한-미 통상관계의 균형점은 ④라 할 수 있다. 즉, 한-미 통상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탈냉전 시대의 도래는 동맹내 결속력을 와해시킴으로써 그 균형점을 ①에서 ④로 옮겨 가게 할 수 있다. 1950·60년대에 있어서 한-미 통상관계를 대변하는 ①에서 미국의 이익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군사적인 측면이 강하며, 한국의 이익은 정치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1970·80·90년대의 한-미 통상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의 측면 강화는 그 균형점을 ④로 즉 보다 갈등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물론 향후 이러한 균형점은 양측의 경제상황 및 신뢰개선에 따라 다시 ①로 환원될 수도 있는 것이다.

〈표 4〉 Stag Hunt 게임 (한-미 통상관계)

한국	미국			
	협력(시장개방)		기만(시장보호)	
협력(시장개방)	①	1, 1	②	4, 2
기만(시장보호)	③	2, 4	④	3, 3

주: 각 행위로 인한 대가는 1(최선)부터 4(최악)까지의 등급으로 되어있다. 앞의 값이 한국의 것이고 뒤의 값이 미국의 것이다.

또한, 한-미 통상분쟁은 미국의 한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기대수준과 한국의 대미 시장개방 실제수준과의 격차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미국의 한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기대수준 - 한국의 대미 시장개방 실제수준) ↑ ↓ → 한-미 통상분쟁 ↑ ↓ 로서 나타낼 수 있다. 1950·60년대에 있어서 미국의 한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기대수준과 실제수준 사이에는 격차가 미약하여 통상분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80·90년대에 있어서 이러한 격차는 미국의 기대수준 급상승으로 인하여 증폭되어 통상분쟁의 증가를 가져왔다. 21세기초에 있어서 한국

의 미국에 대한 시장개방의 확대는 미국의 기대수준과의 격차 축소를 가져와 SH 게임에서의 균형점인 ㉔로 환원되어 한-미 통상관계를 보다 자유무역화할런지 모른다.

IV. 결론: 게임이론과 한-미 통상분쟁의 이해

한-미 통상관계는 정치적인 시각과 경제적인 시각을 모두 고려하여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경제적인 시각만을 고려할 경우 이는 PD 게임에서 말하는 갈등관계만을 나타내나, 정치·경제 상호보완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 SH 게임에서 말하는 협력관계를 보여준다. 냉전체제 하의 동맹국들인 한-미 통상관계는 국제정치경제적인 시각을 고려한 SH 게임으로 설명함이 타당하다. 더욱이 1950년대 이후 한-미 통상관계의 변화를 분석함에 적절한 틀을 제공한다. 1950·60년대의 비갈등적인 한-미 통상관계는 미국경제의 강화와 경직된 냉전적 양극체제 및 한국에 대한 강력한 미국의 영향력에 기초하며, 1970·80·90년대의 갈등적인 한-미 통상관계는 미국경제의 약화와 이완된 탈냉전적 다극체제 및 한국에 대한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에 근거한다. 아울러, 1950·60년대의 비갈등적인 한-미 통상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군사적인 측면이 강하며, 한국의 이익은 정치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970·80·90년대의 갈등적인 한-미 통상관계는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의 측면 강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향후 양국의 경제 및 신뢰 향상에 따라 다시 비갈등적인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냉전적 양극체제하의 동서긴장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시키며, 이러한 시기에 미국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에 보다 강조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냉전적 양극체제하에서 강력한 한-미 정치·군사협력은 한-미 통상관계를 협력적으로 유지하게하며, 탈냉전적 다극체제로의 전환은 단기적으로 이완된 한-미 정치·군사협력관계로 인해 한-미 통상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시장개방의 안보외부효과는 군사동맹내의 국가들사이에서 강할 것 같다. 전후 서구시장의 개방은 다극체제에서 양극체제로의 전환과 맥을 같이한다. 1·2차 대전 사이의 무역의 붕괴는 부분적으로 다극안보딜레마의 존재로 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무역의 문제를 PD게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체제에서 존재하는 안보외부효과를 간과하는 것이다. 한-미 통상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정치적 요인의 배제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투고일: 4월17일, 심사완료일: 6월5일 ■

참고문헌

- 강태훈 외. 1999.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과 지역질서』. 서울:오름.
- 김상준. 1982. 『국제정치이론 I』. 서울:삼영사.
- 박운서. 1988. 『통상마찰의 현장』. 서울:매일경제신문사.
- 신유균. 1995. 『신교역질서와 한국의 선택』. 서울:한국무역경제.
- 이남구. 1994. 『국제무역정책』. 서울:무역경영사.
- 이상환. 1995. "미국과 동북아 삼국간의 무역분쟁: 패권안정이론과 잉여능력이론의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35집 1호 27-62.
- 이상환. 1996.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본 미국과 동북아 삼국간의 통상관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1호 297-319.
- 이상환. 1996. "시장개방과 미-동북아 통상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 Altman, Roger C. 1994. "Why Pressure Tokyo?" *Foreign Affairs*, 73:2-6.
- Baldwin, Robert E. 1985. *The Political Economy of U.S. Import Policy*. The MIT Press.
- Bergsten, C. Fred. 1988. *America in the World Economy: A Strategy for the 1990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Bergsten, C. Fred. 1994. "APEC and World Trade: a Force for Worldwide Liberalization." *Foreign Affairs*, 73:20-26.
- Cline, William R. 1982. *Reciprocity: a New Approach to World Trade Polic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Conybeare, John A. 1984. "Public Goods, Prisoners' Dilemmas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8:5-22.
- Conybeare, John A. 1987. *Trade Wars: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Rivalry*. The Columbia University Press.
- Cowhey, Peter F. and Edward Long. 1983. "Testing Theories of Regime Change: Hegemonic Decline or Surplus Capac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37:157-188.
- Destler, I.M. 1992. *American Trade Politic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Destler, I.M. 1986. *American Trade Politics: System Under Stres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Destler, I.M. and John Odell. 1987. *Anti-Protection: Changing Forces in United States Trade Politic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Gilpin, Robert.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ilpin, Robert. 1975.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Basic Books.
- Golden, David and James M. Poterba. 1980. "The Price of Popularity: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examine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4:696-714.
- Goldstein, Judith. 1986.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80:161-184.
- Gowa, Joanne. 1989. "Bipolarity, Multipolarity, and Free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1245-1256.
- Hirschman, Albert. 1980.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ohane, Robert. 1982. "Hegemonic Leadership and U.S. Foreign Economic Policy." In *America in a Changing World Political Economy*, eds. William Avery and David Rapkin. The Longman Publishing Company.
- Kindleberger, Charles P. 1981. "Dominance and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Exploitation, Public Goods, and Free Rid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5:242-54.
- Krasner, Stephen D. 1976.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28:317-348.
- Krasner, Stephen D. 1985. *Structural Conflict: The Third World Against Global Liberalis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ugman, Paul R. 1986. *Strategic Trade Policy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s*. The MIT Press.
- McKeown, Timothy J. 1983. "Hegemonic Stability Theory and 19th Century Tariff Levels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37:73-91.
- Nordhaus, William. 1975.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169-190.
- Odell, John S. 1985. "The Outcomes of International Trade Conflicts: The US and South Korea, 1960-1981."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9:263-286.
- Odell, John S. and Thomas D. Willett. 1990.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Ordeshook, Peter C. 1986. *Game Theor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llins, Brian M. 1989. "Conflict, Cooperation, and Commerce: The Effect of International Political Interactions on Bilateral Trade Flow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737-761.
- Snidal, Duncan. 1985. "The Limits of Hegemonic Stability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39:579-614.
- Snyder, Glen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61-495.
- Strange, Susan. 1985. "Protectionism and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9:233-259.
- Strange, Susan. 1979. "The Management of Surplus Capacity: or How Does Theory Stand Up To Protectionism 1970s Style?" *International Organization*, 33:303-333.
- Strange, Susan. 1987. "The Persistent Myth of Lost Hegemo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551-574.
- Strange, Susan and Roger Tooze. 1981.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Surplus Capacity*. George Allen & Unwin Ltd.
- Tufte, Edward. 1978. *Political Control of the Economy*.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U.S.-South Korea Trade Relations in Terms of Game Theory

Lee, Sang-Hw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U.S.-South Korea trade relations should be analyzed in the political-economic perspectives. Economic perspectives emphasizes the conflictual relations of prisoner's dilemma game, while the political-economic perspectives show the cooperative relations of stag hunt game. The U.S.-South Korea(the allies under the Cold War system) trade relations should be explained on the basis of stag hunt game in term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 cooperative relations of 1950s-1960s are based on the good economic situations of the U.S., the bipolar system of cold war period, and the strong U.S. influences toward South Korea, while the conflictual relations of 1970s-1990s are based on the bad economic situations of the U.S., the multipolar system of post cold war period, and the reduced U.S. influences toward South Korea.

Key words: U.S.-South Korea trade relations, prisoner's dilemma game, stag hunt game